

마태오의 원자료 중의 하나인 마르코복음에서 ‘오클로스’(ὄχλος)가 크게 부각되었는데, 그 성격은 ‘눌린 자와 가난한 자’로써 집약된다. 그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하고 무능하여 도움을 받고 구원을 청해야 하는 수혜자적 성격이 짙게 드러나 있다.⁶⁸⁾

그런데 마태오는 오클로스에 대한 마르코적 기본인식을 그대로 전승하면서도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마태오는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마르코보다 11회나 더 사용함과 동시에, 마르코의 오클로스를 ‘라오스’(λαός)로 두 번 교체한다(27, 20·27, 25). 그런데 그것은 대사제와 장로들에게 세뇌되어 예수를 처형하라고 소리치던 그 민중의 경우이다. 또 마르코에는 인용문 외에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라오스를 14회나 사용한다. 라오스의 사용도에 있어서 마태오와 같이 마르코와 Q자료를 함께 대본으로 하는 루가는 라오스를 그보다 훨씬 많이 사용하는데, 라오스와 오클로스를 사용하는 둘을 비교해보면 마태오의 민중 이해의 일면이 드러난다.

1) 언어적 성격

마르코와의 비교 : 마태오는 마르코의 오클로스라는 말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할 뿐 아니라 이 단어를 추가로 사용하며,⁶⁹⁾ 그 개념을 그대로 전수하고 있다. 가령 목자 없는 양(9. 36), 불쌍한 무리(14,

68) 안병무, 「예수와 오클로스」, 『현존』, 1979년 10월호 ; 『민중과 한국신학』(한국신학연구소, 1982)에 수록.

69) 마태 4, 25 ; 5, 1 ; 7, 28 ; 8, 1 ; 9, 8 · 23 · 25 · 33 · 36 ; 11, 7 ; 12, 23 · 34 · 36 ; 14, 5 · 13 · 15 · 19 · 23 ; 15, 30 ; 20, 29 · 31 ; 21, 8 · 9 · 11 ; 22, 33 ; 26, 56 ; 27, 15 · 24.

15), 배고픈 무리(14, 19), 병 든 무리(15, 30) 등등이 그런 것이다.

마태오는 마르코에 나오는 오클로스의 적극적인 의미를 그대로 전승하는데 그것은 루가와 비교하면 더 확실해진다. 마르코 3장 31절 이하에는 “무리(오클로스)가 그를 둘러앉았다”는 전제 다음에 예수가 “자기를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고 ‘보라, 여기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문맥상으로 볼 때, 여기서 바로 오클로스가 그의 어머니요 형제들이라고 지칭한 것이며, 그들은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 루가(8, 19~21)는 오클로스를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만나는 데 있어서 장애물처럼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는 “내 어머니요 형제”라는 중대한 선언을 결부시키지 않은 데 대해서 마태오(12, 46~49)는 오클로스를 제자와 동일시하면서 마르코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고 있다.⁷⁰⁾

마태오 21장 26절에서는 오클로스들이 세례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의 적대자들이 그를 무서운 존재로 보았다는 마르코(11, 32)의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여 전승한 반면에, 루가는 오클로스를 라오스로 바꾸었다.

마태오 21장 46절도 기득권자들이 본 오클로스의 위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마르코(12, 12)와 꼭 같은 뜻으로 전승하지만, 역시 루가는 이 무리를 라오스로 바꾸고 있다(20, 19).

70) 양식사적 시각에서는 46절의 오클로스와 49절의 제자들을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마태오를 편집사적 시각에서 볼 때, 그들을 구별할 의도를 찾아볼 수 없다. 가령 마태오 5장 1절에서 오클로스와 제자가 병행되나 오클로스가 청중에서 제외됐다고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마태오에는 민중과 제자를 같은 청중으로 병행시키는 경우가 여러 곳이다(예 23장 1절).

루가와와의 비교(Q자료) : 위에서 이미 마르코 자료를 루가와 비교했는데, Q자료 사용에서도 루가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루가 3장 7절에서 세례자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오클로스)를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데 대해서, 마태오는 오클로스를 빼고 “많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3, 7)로 바꾸고 있다.

루가 13장 17절에서는 예수의 행적에 감탄하는 이들을 라오스라고 한 데 대해서, 마태오는 오클로스로 명기하고 있다(9, 8).

루가 20장 45절에서 예수의 청중을 라오스라고 하고 그들을 제자들과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마태오는 “오클로스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23, 1)고 하며 사실상 둘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오클로스와 이스라엘 : 9장 23절에서 마태오는 오클로스를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대조시키면서 이스라엘과의 관련 속에서 서술하고 있다. 또한 15장 31절에서 오클로스가 예수의 기적행위에 놀라면서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함으로써 ‘하느님’과 ‘예수’와 오클로스를 ‘이스라엘’과 결부시키고 있다. 이와 꼭 같은 서술법이 9장 33b~34절에도 나온다.

한편 마태오는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 경우 70인역(LXX)에 따라 민중을 라오스로 표기하고 있다(1, 21·2, 6·4, 16·13, 15·15, 8).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라오스를 예외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1장 21절에서 예수의 이름을 설명하면서 “자기 백성(라오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과 2장 6절에서 “내 백성(라오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 중의 잃은 양만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는 말과 연결시켜볼 때, 마태오는 ‘이스라

엘' '라오스' '예수'를 한 맥에서 보고 있다는 단면을 드러낸다.

끝으로 종합보고(4, 23~25)에서 예수가 고쳐준 여러 가지 병자들을 라오스(ἐν τῷ λαῷ, 23절)라고 하고, 뒤이어 바로 그들을 오클로스라고 함으로써(25절) 라오스와 오클로스를 같은 뜻으로 쓰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상에서 볼 때, 마태오의 언어적 사용에서는 라오스와 오클로스가 성격상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가 중요시하는 '이스라엘'과 직결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오클로스 또는 라오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는 이스라엘민의 동일성을 찾으려는 목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것은 다음에서 더 분명해질 것이다.

2) 의식화된 민중

마태오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5, 13~14)라는 예수의 말을 고유하게 전승함으로써 세계 안에서의 이스라엘민중의 위치를 선명하게 천명한다. 세상의 소금이 되며, 빛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한 예수의 가르침 전체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그것을 마태오에 고유한 전승과 그 해석에서 집약시켜 주목해보기로 한다.

(1) 산상의 설교

산상설교의 청중은 민중이다.⁷¹⁾ 그런데 이에 대한 무수한 글들이

71) 4, 23~25은 청중을 성격화하는 총괄보도로서 그 청중이 바로 큰 무리(ὄχλος πολλοί)임을 전제하고 있다. 7장 28절도 산상수훈의 청중이 저들이었음을 명기한다. 그룬트만(W. Grundmann, *op. cit.*, S. 111, 151)은 이 청중은 바리